

문화도시 조성계획 이해도 높인다

군산시·군산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 군산 주간, 로컬共樂(공락) 함께圖生(도생)' 11월 4일까지 운영

군산시와 군산문화도시센터가 2023 문화도시 군산 주간, 로컬共樂(공락) 함께圖生(도생)을 오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 군산시 일대에서 운영한다.

'2023 문화도시 군산 주간, 로컬共樂(공락) 함께圖生(도생)'은 포럼, 소상공인 해커톤 등 깊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와 군산 문화도시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산 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들과의 확장된 문화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대학교 커뮤니티센터 '담소'에서 시작되

는 2023 문화도시 군산 주간, 로컬共樂(공락) 함께圖生(도생)은 로컬과 기업이 함께 걷는 ESG포럼 등 7가지 행사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와 군산문화도시센터가 어떤 비전과 방향을 만들어가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2023 문화도시 군산 주간, 로컬共樂(공락) 함께圖生(도생)'은 포럼 및 행사 뿐 아니라, 관내 민간 기업들, 서해 연안의 도시들, 금강 하구 도시들과 군산문화도시센터가 앞으로 함께 할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등을 목표로 업무협약도 진행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유선 등을 통한 사전접수, 당일 현장 접수로도 함께할 수 있다.

이화숙 군산문화도시센터장은 "2023 문화도시 군산 주간, 로컬共樂(공락) 함께圖生(도생)"을 통해 군산시와 군산문화도시센터가 준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군산시민 및 인근 도시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며 "더욱 견고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군산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필관 기자



제2회 장수문화원의 날 및 제15회 장수문화예술인의 날 행사가 지난 26일 장수한누리전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수문화원의 날' 성황리 열려

장수문화예술인의 날 행사 함께 개최

제2회 장수문화원의 날 및 제15회 장수문화예술인의 날 행사가 지난 26일 장수한누리전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수문화원이 주관하고 전북도와 장수군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2021년 재계결연을 맺은 김길수 경상남도 문화원 연합회장 겸 진주문화원장과 임지원 및 문화공연단, 나중우 전라북도 문화원 연합회장, 전북 시군 문화원장과 임지원들이 참석했고, 최훈수 장수군수, 이종섭 부의장, 박용근 도의원, 최한주 행정복지위원장, 김광훈 산업건설위원장, 유경자 의원, 허윤중 장수교육장, 이은실 장수우체국장, 송제근 무진장축협조합장, 신봉수 주농개정신선양회장, 조길성 생활문화예술동호회장, 고강영 한국에총회장, 이상식 장수한누리협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어서 장수군 문화 발전에 기여한 김태철 이사가 장수 군수상, 전통문화육성 발전에 기여한 장수군 보존회 김병조 회장이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향토사발굴에 기여한 장수학 연구소 김영울 회원과 지역문화 발전에 앞장선

장수군청 문화유산팀 손호성 팀장이 장수문화원장상이 수여됐다.

공연으로는 순천국악협회지부 퓨전 국악패이 판국공연, 장수군노인 장애인 복지관 사과밴드, 생활문화예술동회 일수우리가락, 문화원 전통무용단과 시극단 공연, 진주문화원의 산조춤과 태평무, 부안문화원의 부포놀이로 초청공연으로 이어졌다.

전시실에서는 문화화교 강좌로 운영되고 있는 민화반과 석각반의 작품전과 체험, 지역의 전문예술인과 단체들로 선정된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작품 전시가 있었는데 장수랜드메이드 스토리, 한국에총장수지부, 가야열마루, 전북가야문화원, 한국문인협회장수지부, 김여울, 배철호, 이재성 작가들의 문화와 작품을 선보였으며, 사회는 장계지역 출신 아나운서인 박근아 씨가 진행했다.

또한 참여한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경품추첨 행사가 마련되어 더욱 풍성한 시간이었는데 1등(TV)에 당첨된 김일한 이사가 당첨된 경품을 진주문화원에 기증하면서 화가에에한 나눔의 행사로 진행되어 관객들에게 많은 호응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장수=고관호 기자



부안군, 클래식×미디어아트 '인생 그림책' 11월 3일 공연

부안군은 오는 11월 3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에서 클래식과 미디어아트가 함께하는 '인생그림책' 공연을 개최한다.

'클래식x미디어아트 인생그림책'은 인생을 주제로 KBS 성우 출신 나레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함께 성악,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등 다채로운 기악 연주에 무용수의 안무까지 더해진 화려한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 드뷔시의 '달빛'과 피아졸라의 '방각', 디즈니 영화 OST 코코 '기억해 줘', 인생은 아름다워 주제곡 등을 포함한 총 12개의 곡으로 무대를 채운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기획되었다. /부안=김석정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3년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으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주교육문화회관, 문체부 장관상 수상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 선정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3년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으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을 발굴·포상함으로써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전주교육문화회관은 '도서관 서비스 혁신 사례'와 '도서관 경영, 공간의 혁신성'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으며, 상장과 함께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전주교육문화회관 도서관은 전라북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가운데 장서 수가 가장 많은 도서관으로 △유아부터 학부모를 아우르는 생애 단계별 독서교육 △학생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독서 탐험대 △학생들의 일상적 책임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협력 등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규 관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전주교육문화회관 도서관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 받은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지식과 창의성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며, 지역 사회의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 참여... 디네트팀 힐링 음악회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에서 주관하는 '2023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 사업에 참여하는 디네트팀이 복합문화공간 동근숲 야외마당(전주시 풍남문 2길 98-4)에서 지난 28일 오후 4시 '중중 다른 가족'이라는 힐링 음악회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도내 청년 커뮤니티 조성 및 청년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청년 소모임들이 지역과 청년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문화기획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10개 소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를 개최하는 디네트 팀은 김을지(violin), 김다인(viola), 박혜원(cello), 임서영(contrabass), 조성현(classiguitar) 총 5명으로 이루어진 현악 콰텟(오중주)으로, 이번 공연 '중중 다른 가족'은 반려동물과의 이별(애틀

스)에 따른 슬픔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의 음악들로 구성됐다.

그들의 반려동물과 가족들의 추억을 담은 곡 '감나무 집', 'Luthi suite'을 연주하며 창작곡과 함께 관객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지브리 영화음악 등도 그들의 음식으로 연주했다.

또한 이번 공연은 동근숲에서 진행중인 반려동물 보호 프로젝트인 '고양이 학교'와 함께 진행되는 공연이기도 하다.

디네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반려동물과의 관계만이 아닌 청년들이 마주한 현대의 사회현상을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시선으로 기록하고 나눔으로서 향후 사회적 정서 치유와 시대적 연대감 회복에 기여했으면 한다"며 "음악과 전시가 함께한 경험이 공명이 되어 퍼져나가 사회에 큰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업인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청년애 희망을, 노년애 행복을, 농업애 미래를

농지은행은 농지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농지은행'을 검색하세요 검색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농지연금사업

- 만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원
- 배우자 승계가능, 가입비 없고 재산세 감면 혜택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농지우선지원

- 청년후계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과원규모화사업

- 고령·은퇴농, 비농업인 등의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등에게 매도, 임대

* 농지임대수탁사업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

상담/문의 1577-7770

홈페이지 www.fbo.or.kr